

## 글로벌 은행권의 토큰화 예금 추진 현황 점검

황원정 | 책임연구원(3705-6156)  
이상원 | 글로벌은행부장(3705-6216)

- [이슈] 최근 디지털 화폐로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토큰화 예금<sup>tokenized deposits</sup>'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권의 토큰화 예금 추진 현황 및 전망을 점검
  - 광의의 토큰화 예금은 프로그래머블한 플랫폼(분산원장기술DLT 등) 상에서 전통적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 또는 발행한 것으로 정의
    - 토큰화 예금은 토큰의 ①원장 구조(Native vs Non-native)와 ②권리 귀속 및 이전 방식 (Account-based vs Token-based)에 따라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현황] 글로벌 은행들의 토큰화 예금은 폐쇄/허가형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기관·기업용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 개별 은행들은 동 서비스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상호 운용성 확장에 총력. 소매용 토큰화 예금의 경우, 소수 은행을 중심으로 출시 준비 중
  - 최근 주요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토큰화 예금이 시범실행 단계를 거쳐 정식 출시. 대부분의 사례가 폐쇄형/허가형 블록체인에서 기업·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된 계좌형 토큰화 예금에 해당
  - 글로벌 은행권은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성<sup>interoperability</sup> 확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아직은 기술적·운영상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진전이 기대
    -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의 통합 △타행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통적 금융 인프라(SWIFT 등) 활용 △공개형 블록체인 상 발행 등이 포함. 특히 JPMorgan이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JPM Coin에 주목할 필요
  - 한편 소수 은행들은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토큰화 예금 출시를 준비 중. 은행과 협력 업체들은 고객 확보 및 수요 창출을 위해 금전적 유인을 제공할 계획
- [전망 및 평가] 토큰화 예금은 글로벌 은행권의 채택 및 상업적 활용사례가 본격화되면서 차세대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성장 및 역할 확대가 예상. 이에 정책당국은 토큰화 예금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에 나설 필요
  - 토큰화 예금은 '30년 연간 \$100조~140조에 달하는 거래<sup>transaction volume</sup>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규모(\$95조 추정)를 능가하는 규모(Citi)

□ [이슈] 최근 디지털 화폐로서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토큰화 예금<sup>tokenized deposits</sup>’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권의 토큰화 예금 추진 현황 및 전망을 점검

- 광의의 토큰화 예금<sup>tokenized deposits</sup>은 프로그래머블한\* programmable 플랫폼(분산원장기술<sup>DLT</sup> 등) 상에서 전통적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 또는 발행한 것으로 정의

\* 스마트 계약 등 사전 정의된 조건이 달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성. 토큰화 예금 등 디지털 화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

- 토큰화 예금은 토큰의 ①원장 구조(Native vs Non-native)와 ②권리 귀속 및 이전 방식(Account-based vs Token-based)에 따라 두 가지 유형(총 네가지)으로 구분

- 원장<sup>ledger</sup> 구조: 온체인 상 직접 단독으로 발행되는 경우 네이티브, 오프체인에서 이미 발행된 자산(예금)이 보조적 레이어인 온체인에 디지털로 표현(간접 발행)되는 경우 비<sup>非</sup>네이티브 토큰

- 권리 귀속·이전: 은행에 대한 토큰화 예금의 청구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는 경우는 계좌형, 토큰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는 토큰형 토큰화 예금으로 구분

계좌형은 유기명 증권<sup>non-bearer instrument</sup>으로 은행의 비고객에게 직접 양도 불가. 반면 토큰형은 무기명 증권<sup>bearer instrument</sup>과 유사해 발행 은행의 인지 없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EBA)

- 토큰화 예금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아직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업계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혼용. 본고에서는 토큰화 예금으로 통칭

- 예를 들어 Oliver Wyman과 JPMorgan은 블록체인 기반 예금(=광의의 토큰화 예금) 중 계좌형은 △예금 계좌<sup>deposit account</sup>로, 토큰형은 △예금 토큰<sup>deposit token</sup>으로 분류

- 반면 Citi는 △토큰화 예금(협의)을 ‘각 토큰이 소매·기관예금에 의해 지지되는 상업은행 예금의 토큰<sup>token representation</sup>’, △예금 토큰을 ‘소매·기관예금을 토큰 형태로 직접 발행한 블록체인 상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설명

- 아울러 토큰화 예금, 예금 토큰, 그 외 하이브리드 유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은 ‘은행 토큰<sup>bank token</sup>’으로 통칭

〈표 1〉 주요 국제기구의 ‘토큰화<sup>tokenization</sup>’ 정의

기관	내용
FSB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표현되는 자산
OECD	기존 실물자산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권리를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디지털 토큰에 연계 및 내재
BIS	프로그래머블 플랫폼에서 전통자산의 디지털 표현을 생성·기록하는 과정
IOSCO	토큰화는 자산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하게 나타내는 절차이며, 토큰은 자산 또는 자산 소유권의 표시

자료: 각 기관

□ [현황] 글로벌 은행들의 토큰화 예금은 폐쇄/허가형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기관·기업용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 개별 은행들은 동 서비스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상호운용성 확장에 총력. 소매용 토큰화 예금의 경우, 소수 은행들을 중심으로 '26년 출시 준비 중

○ 최근 주요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토큰화 예금이 시범 실행pilot 단계를 거쳐 정식 출시. 대부분의 사례가 폐쇄형private/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에서 기업·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된 계좌형account-based 토큰화 예금에 해당<표 2>

- 토큰화 예금의 선도적 사례 중 하나인 JPMorgan의 Kinexys Digital Payment는 출시 이래 일일 결제처리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24.11월 \$20억 → '25.12월 \$50억)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 중

- 독일 BMW Group이 '25.12월 기업고객 최초로 KDP의 Programmable Payment 서비스를 활용해 완전히 자동화된 외환 거래\*를 실행. 전통적인 결제 시간대 외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료
   
\* BMW의 뉴욕 블록체인 예금 계좌의 달러 잔액이 일정 수준(사전에 설정) 이하가 되면, 프랑크푸르트의 블록체인 예금 계좌에서 유로화를 달러로 환전해 뉴욕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

### 〈표 2〉 글로벌 은행들의 기업/기관용 토큰화 예금 주요 추진 사례

#### 사례 ① JPMorgan | Kinexys Digital Payments

'19년 출시. 당시 명칭은 JPM Coin이었으나 '25년 초 Kinexys Digital Payments로 변경.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초기 은행 내 자본 이동 등 내부 활용에서 기업·기관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 고객의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블록체인 예금 계좌로 자금 이동에는 주말 3시간의 중단 시간이 있으며, 네트워크 상 이체는 24/7 연중무휴

#### 사례 ② Citi | Citi Token Service<sub>CTS</sub>

'24.10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출시. '25.11월 지원 통화에 유로화가 포함되면서 현재 5개국(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에서 서비스 제공. 기업·기관고객들은 연중무휴로 전세계 지점에 있는 본인, 타인(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며, 토큰을 매매, 보유할 필요 없이 뉴욕, 싱가포르, 런던 지점에 있는 계좌를 이용

#### 사례 ③ DBS | DBS Token Service<sub>DTS</sub>

'24.10월 토큰화, 프로그래머블 기능, 스마트컨트랙트 등을 기반으로 출시한 서비스. 사실상<sub>essentially</sub> 토큰화 예금 서비스로 평가되는 Treasury Token을 포함

#### 사례 ④ HSBC | Tokenized Deposit Service<sub>TDS</sub>

'25.5월 홍콩, 싱가포르, 9월 영국, 럭셈부르크에서 기업고객 대상으로 첫 출시. 고객 계좌의 예치금(cash deposit)에 대한 디지털 표현(records)으로 '26년 미국, UAE로 서비스 확장 계획. 참여국의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며, 지원통화는 5종(EUR, GBP, HKD, SGD, USD)

#### 사례 ⑤ UBS | UBS Digital Cash

'24.11월 다국적 기업, 은행권이 참여한 파일럿 완료.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스마트계약 기반. 당행고객 간 자금 이전은 사실상 실시간, 연중무휴 처리. '25.11월에는 Ant International과 MOU도 체결

#### 사례 ⑥ Standard Chartered

SC의 홍콩 및 싱가포르 자회사는 '25.12월 Ant International의 블록체인 재무관리 플랫폼 Whale과 연동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 예금 솔루션을 출시. 싱가포르에서는 SGD·USD, 홍콩에서는 HKD·CNH·USD 거래를 지원

#### 사례 ⑦ BNY Mellon

'26.1.9일 디지털 자산 플랫폼 상에서 토큰화 예금을 출시. 동 상품은 기관 고객들이 은행 계좌에 보유한 예금을 온체인으로 표현한 것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자금 이체가 가능. 담보, 마진거래 등에 활용되고 결제 속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자료: 각 기관, 외신 종합

- 글로벌 은행권은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성\* 확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아직은 기술 개발 및 도입 초기 단계로 기술·운영상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진전이 기대

- \* 기존 금융시스템, 이종 블록체인(타행 토큰화 예금 등), 또는 동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다른 자산들과 단절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
- 은행의 자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화 예금은 블록체인 생태계간의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면서 과거 Web2 플랫폼이 겪은 구조적 한계를 답습한다는 지적

- 토큰화 예금의 기술적 상호운용성(특히 기관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화폐의 바람직한 특성인 화폐의 단일성\*의 달성을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Oliver Wyman)

\* 화폐의 단일성 singleness of money은 모든 형태의 화폐가 액면가(명목가치)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안정적이며 널리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

- 토큰화 예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려면 과거 은행들이 은행간 소매결제 운영 방식을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큰화 예금의 기관간 상호운용 방식\*을 고안할 필요(BIS)

\*BIS는 다중 발행-분절된 네트워크 multiple-fragmented 체계에서 벗어나 다중 발행된 토큰화 예금이 상호작용 multiple-interoperable하는 체계, 공동-통합 플랫폼 common-combined 개발 등을 제안(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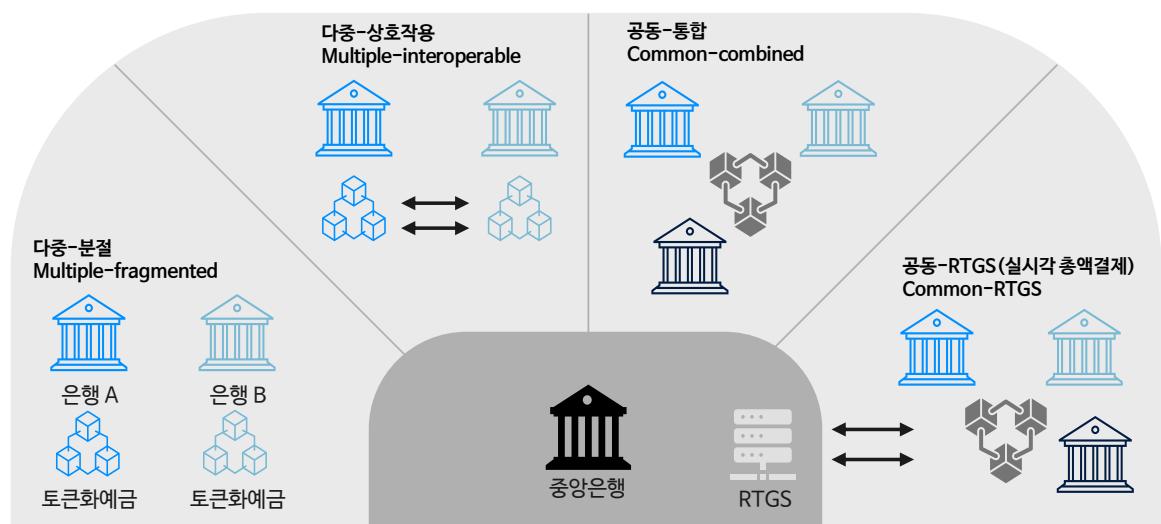
- 이에 은행들은 상호운용성 확장 방안으로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 통합 △타행과 공동 프레임워크 구축 △전통 금융인프라 활용 △공개형 블록체인 상 발행 등을 추진<표 3>

- 특히 JPMorgan<sup>o</sup> 25.11월 공개형 public 블록체인인 Base(Coinbase의 Ethereum Layer 2)상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토큰화 예금\* JPM Coin(티커:JPMD)에 주목

\* JPMorgan은 JPM Coin이 최초의 은행 발행 달러화 예금 토큰이라고 설명

- JPM Coin은 업계에 공개형 블록체인 상 토큰화 예금의 작동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상호 운용성 확장 측면에서 하나의 분수령 watershed이 되었다는 평가(American Bankers 등)

〈그림 1〉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성 확대 방식



자료: BIS, 국제금융센터. 주: RTGS는 은행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종류 중 하나로 이제 지시와 최종 결제가 독립 및 실시간 처리가 특징

〈표 3〉 글로벌 은행들의 토큰화 예금 상호운용성 제고 노력

기관	내용
자체 결제 네트워크와 통합	
Citi	<p>'25.9월 토큰화 예금의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해 CTS와 '24/7 USD 청산 솔루션'을 통합했다고 발표. Citi 고객들은 24/7 USD 청산솔루션을 사용하는 40개 관할권의 250여개 은행으로 CTS를 통한 자금 이체 가능</p> <p>* 24/7 USD 청산솔루션은 Citi가 '22년 말 출시한 금융기관 대상 실시간 자금결제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이 보낸 자금의 즉시 입금처리 여부가 수취은행(receiving banks)에 의존한다는 점은 한계. 현재 미국, 영국 기관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되며 향후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li> </ul>
타행과 공동 프레임워크 구축	
JPM-DBS	<p>두 은행은 '25.11월 양사의 블록체인 생태계(Kinexys Digital Payments, DBS Token Service) 간 토큰화 예금의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에着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프레임워크 하에서 JPM 고객이 토큰화 예금으로 DBS 고객에 대해 자금을 지급하면 수취인은 이를 DBS 토큰으로 받을 지, 또는 동일 가치의 법정화폐로 받을 지 선택 가능</li> </ul>
영국 은행권	<p>영국 금융협회 UK Finance는 6대 은행(Bardays, HSBC, Lloyds, NatWest, Nationwide, Santander UK)의 참여로 '25.9월 파운드화 기반 토큰화 예금 파일럿에着手.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P2P 결제, 모기지 리파이낸싱 절차, 디지털 자산 결제 등을 테스트. '26년 중반 파일럿 완료 후 출시를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BC의 글로벌 결제 책임자인 Manish Kohli는 토큰화 예금이 지금까지는 타 금융기관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으나, 이번 파일럿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 현재로서는 국내 사용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수요가 많은 국경 간 결제 부문에서 성장이 유망하다고 부연</li> </ul>
전통적 금융인프라 활용	
HSBC	<p>HSBC는 Ant International, SWIFT와 함께 '25.12월 ISO 20022*를 활용한 토큰화 예금의 국경 간 결제 개념증명(POC) 완료. 이번 개념증명에서 Ant Int'l은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와 Swift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그 위에서 HSBC의 토큰화 예금(TDS)을 통해 싱가포르-홍콩 지점 간 자금 결제를 완료. * 금융기관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메시지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사가 공동 개발한 공통 프로토콜이 도입될 경우, Ant Int'l은 토큰화 예금 활용을 위해 각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짐. 아울러 기술 상용화 시 다른 디지털 머니 발행 업체들이 해당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고, 타 은행 및 외부 고객들의 솔루션 도입이 쉬워지며, 디지털머니-전통화폐 간 상호운용성 확대 등도 기대</li> </ul> <p>* 참고로 Ant International이 연간 \$1조에 달하는 국경 간 결제 효율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10여개의 글로벌 은행들과 토큰화 예금 활용을 위한 협업을 추진 중</p>
공개형 블록체인 상 발행	
JPM	<p>'25.11월 Base에서 발행된 JPM Coin은 은행의 온보딩 절차를 완료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고객들 간의 이전만 가능. 계열사간 결제, 금융기관 청산 등과 같은 제한적 사용 사례에서 시작해 프로그래머블 결제로 서비스 확대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부문 책임자 Naveen Mallela는 JPM Coin이 초기에는 허가형 구조 하에서 은행의 직접 고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추후 간접 고객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하고 다른 통화(유로화, 파운드화)나 타 블록체인으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그 일환으로 잠재적인 유로화 예금토큰 출시에 대비해 티커 JPME를 상표로 등록</li> <li>또한 1.7일 Digital Asset社와 협력해 공개 및 비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Canton Network에서 JPM Coin 출시 계획을 발표. '26년에 걸쳐 단계적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 초기 협력은 Canton에서 JPM Coin의 직접 발행, 이전, 실시간 상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업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점. 이후 블록체인 예금계좌 등 Kinexys Digital Payments에 대한 추가적인 연결 가능성도 탐색</li> </ul>
Lloyds	Colton Network에서 토큰화 예금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화 예금으로 Archax로부터 토큰화 영국 국채를 구매하는 파일럿 완료.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토큰화 예금이 발행된 영국 내 최초 사례

자료: 각 기관, 외신 종합

- 한편 소수 은행들은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토큰화 예금 출시를 준비 중. 은행과 협력업체들은 고객 확보 및 수요 창출을 위해 금전적 유인(리워드, 이자 등)을 제공할 계획

- 일본 유초은행 Japan Post Bank은 '25.11월 Shinoken Group, DeCurret DCP社와 협력해 소매

토큰화 예금DCJPY\* 파일럿(월세 납부 자동화 등)에 착수했으며, '26년FY 내 본격 출시 계획

\*DeCurret DCB社가 '24.8월 출시한 토큰화 예금 솔루션으로 GMO Aozora Net Bank가 청정에너지 증서 거래 등에 활용

- 고객들은 예금과 연동된 전용 디지털 계좌를 개설하고 엔화와 DCJPY를 1:1로 전환 가능. 동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만, 이자는 미지급. 다만, 협력업체인 Shinoken Group은 관련 거래 시 자사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리워드Shinoken Coin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 DCJPY는 초기에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소액 부동산 증권, 디지털 상품 거래에 주로 사용되고 향후 송금이나 오프라인 결제 기능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국 Vast Bank는 올해 디지털자산 관련 업체들(Uphold, USBC Inc 등)과 소매고객 대상 토큰화 예금인 'U.S. Bank CoinUSBC'을 출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25.10월)

- Vast Bank는 최초의 발행은행 역할, Uphold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소매고객에게 토큰화 예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계획. 해당 토큰화 예금은 즉시 결제와 글로벌 접근이 가능하고, 소매결제 영역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현금 역할을 수행

- USBC는 규제된 은행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되고, 전통 예금이 제공하는 이자 지급은 물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보상이나 포인트 지급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암호 자산이 지닌 효율성도 보장 기대

- [전망 및 평가] 토큰화 예금은 글로벌 은행권의 채택 및 상업적 활용사례가 본격화되면서 차세대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의 성장 및 역할 확대가 예상. 이에 정책당국은 토큰화 예금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필요

- 차세대 디지털 화폐 시장은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이 공존하며, 이용 주체, 용도 등에 따라 각 화폐들의 역할이 분화 및 특화될 가능성

- 은행은 규제 등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보다는 토큰화 예금 추진에 더 집중할 소지. 고객 및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예금 보호, 컴플라이언스), 이자 수익 등이 토큰화 예금의 이용 요인으로 작용

- 차세대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과도<sub>overfocus</sub> 하며, 자금세탁방지, 세무·회계처리 등 규제 부담을 고려할 때 토큰화 예금이 운영 상 마찰이 적은 장점에 주목(Jane Fraser, Citi의 CEO)

- 한편 지역별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속도에 차별화 예상(미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 CBDC, 영국·유로존: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 병행, 중국: CBDC만 허용 등)

〈표 4〉 주요 디지털 화폐 비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예금	CBDC
발행자	비은행 또는 은행	규제 은행	중앙은행
기초 자산	준비금(현금, 단기국채, 상업어음 등)	은행 계좌의 예치금	중앙은행 직접부채
규제	다양	은행 규제·감독 적용	중앙은행 법규제 적용
위험도	발행자, 준비금 적정성 등에 의존	전통예금 보유와 유사	스테이블코인 대비 낮은편
사용 사례	소매 결제, 가상자산 거래, DeFi, 송금 등	기관 간 결제, 프로그래머블 금융/결제	도/소매 지급결제, 금융포용, 통화정책

자료:Citi

- Citi에 따르면 토큰화 예금은 '30년 연간 \$100조~140조\*에 달하는 거래 transaction volume'를 처리할 것으로 추정.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규모(\$95조 추정)를 능가하는 규모

\* '30년 글로벌 거액 결제(Large payment)의 약 5%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상정

- 스테이블코인이 처리하는 거래 규모는 기본 시나리오(시가총액 \$1.9조, 유통속도 50배\*) 하에서 '30년 약 \$95조 수준 \* 일반적인 통화 유통속도(23년 52배 '24년 54배) 적용

〈표 5〉 '30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예금의 거래 규모 추정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블록체인 기반 예금 거래 규모				
'30년 시장 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래 유통속도 velocity			'30년 글로벌 거액 결제 규모			
	25배	50배	75배	전환 비율	\$2,000조	\$2,400조	\$2,800조
Bear Case \$0.9조	\$23조	\$45조	\$68조	2.5%	\$50조	\$60조	\$70조
Base Case \$1.9조	\$48조	\$95조	\$143조	5.0%	\$100조	\$120조	\$140조
Bull Case \$4.0조	\$100조	\$200조	\$300조	7.5%	\$150조	\$180조	\$210조

자료:Citi

- 이에 정책당국은 토큰화 예금의 확산이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 토큰화 예금은 프로그래머블한 특성(자동화 거래), 온체인 거래의 실시간 투명성 등으로 인해 △군집 행동 △뱅크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또한, 양도가능한 청구권 형태(토큰형)로 설계될 경우, 적절한 규제·감독 부재 시 2차 시장이 형성되고 토큰 가격이 액면금액을 이탈(=화폐의 단일성 훼손)해 금융시장 신뢰를 훼손할 소지(FSB)

- 참고로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토큰화 예금 파일럿 '프로젝트 한강'의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머니 추진 향방에도 주목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혹은 wjhwa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